



한국불교 세계화 국제화를 위한 미 동·서부 간담회

국제포교 역량강화와 해외포교 활성화 등을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를 주제로 미국 동부와 서부 한국사찰의 주지스님과 총무원 관계자 등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1월 7일과 9일 각각 뉴욕 불광선원과 LA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먼저 총무원은 자료발표를 통해 작년 한 해 한국 해외포교의 역사와 현황을 돌아보았고 이어 해외특별교구 설립의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총무원은 해외 특별교구 설립에 대해 지난 40년 간의 해외포교 성과를 기반으로 조직, 인력, 프로그램, 재원 등을 집중하여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특히 서부 간담회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스님과 LA 지역 조계종 사찰 스님 10여 분이 참석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표로 보리사 형전스님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주로 총무원의 보고를 들은 뒤 각 지역의 포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협력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북가주는 총무원측에 포교 스님들에 대한 비자 담당 변호사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을 요청했고, 보리사국제승가교육원 건립을 보고하였다. 재가불자 단체는 관음사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음사가 운영하던 로메이카 불교대학을 다시 열어 포교사를 육성할 것을 건의했

다. 총무원은 서부해외교구의 적극적 설립을 건의했다. 이에 서부 스님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 접점을 찾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유학생 스님들에게 수여되는 장학금 선발 기준을 좀 더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도 있었다. 이어 주지스님들이 해외 포교의 어려운 점에 대해 토론했다. 한마음선원 스님은 젊은 스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몇 달만 살다가 돌아가 버려 현재 20년째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해외 포교를 의무화하기 위한 조계종법 개정이 필요하고, 3급 승가고시 이전에도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류상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절 건물이 20년이 넘었음에도 종교시설로 인가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도 재판진행중이라는 설명도 있었고 보험 없이 맹장 수술을 하면 10만 불(1억2천만 원)이 드니 아프면 대부분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등, 현지 법과 관례로 인해 스님들이 겪는 포교현장의 고충에 대한 솔직한 대화도 오갔다.

이번 간담회는 미동부해외특별교구의 설립을 계기로 조계종 총무원과 해외포교 현장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함으로써 국외 한국불교 발전의 전기가 될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템플스테이 '외국인 상시 운영 사찰' 협약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가운데 해인사와 미황사 등 15개 사찰과 '2012년 외국인 상시 운영 사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해 전국 118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중 공개 사업발표회와 외국어능력 평가 등을 통해 서울 봉은사, 전라도 미황사, 경상도 해인사 등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고 각 사찰의 특성과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은 15개 사찰을 선정하고, 10일 협약식을 체결했다. 아울러 10일과 11일 양일간 이들 사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담인력 육성을 위한 1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시연, 홍보마케팅 강의, 여행사가 바라본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상호 의견 교류 시간도 가졌다. 사업단은 "15개 사찰에 정기 교



육과 함께 사업 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연내 지속적인 전문교육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 외국인 전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상시 운영사찰 정기 교육은 오는 6월과 12월에 2차, 3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2차 교육은 봉은사의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 시연, 친절교육, 불교 문화 강의 등이 실시되며, 3차 교육은 유사 프로그램 체험, 스피치 강의, 타 종교 이해 강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타카대회, 겨울을 녹이는 부처님 본생이야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가 주관한 2012년 '제5회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The 5th Jataka Story Telling Contest)'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했다.

부처님의 본생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이 대회는 2008년 1월 제1회를 필두로 2012년 제5회째 행사를 치렀다. 올해는 저학년(초등1~4학년) 및 고학년(초등5~6학년 및 중등)으로 나누어 각각 다섯 가지 원고를 신청 마감 60일 전 공고하였고, 참가자들은 이중 하나를 골라서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예년의 두

배나 되는 70팀 77명이 1월 7일 예선에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여 여기서 선정된 24팀 30명이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본선을 치렀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관음사에 다니는 박주영(여, 11세, 대구 성동초교5년) 어린이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 진관사, 부산 흥법사, 대구 한국불교대학이 단체 참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예선은 10명의 국제포교사들이 2개 조로 나누어 심사를 했고, 본선은 포교원 연구실 사무국장 해안스님과 불모(佛母) 브라이언 배리, 국제독일학교 서울 교장 모니카 슈미트, 저널리스트 앤드류 새먼, 아주대학교 교수 스캇 스캐터그 등 다섯 분이 내용에 대한 이해, 표현, 태도 등에 역점을 두어 평가했다. 끝으로 이 대회에 빠짐없이 참여한 비로자나 국제선원의 자우스님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위)미동부 간담회 (아래)미서부 간담회



세계적인 안목 갖춘 선지식을 길러내는 ‘국제불교학교’

그동안 불교계가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불교는 1,7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음에도 실상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종단의 적극적 지원으로 ‘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경기도 용인시 화운사에 2011년 설립되었다. 현재 학인스님들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사명과 함께 국제적 안목을 갖춘 선지식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국제불교학교는 2년제 특수교육기관으로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제포교,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도,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시에 진행과 통역 등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제불교학교는 비구니스님들이 영어를 비롯한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도록 다양한 분야의 산 교육을 제공한다. 나아가 다종교 시대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불교를 널리 전할 인재를 길러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무처장 지정스님과 원어민이 9명의 학인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어로 모

든 수업과 일상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국제불교학교는 총 5학기로 운영된다. 하루 일과는 크게 영어수업과 불교수업으로 나뉜다. 저녁 시간은 영어일기 작성과 BBC, CNN 등 뉴스를 청취하며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24시간 도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어환경에 100% 노출돼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학인스님들이 영어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역사와 문화를 함께 배우는 영어 시(詩), 2분 다크마 토크시간은 짧지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 새로운 수업방식으로 필드트립(field trip)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현장에 나가 영어로 미션을 해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제불교학교 스님들은 1월 16일부터 워싱턴 방문을 시작으로 약 1달간 미국연수 중이다. 워싱턴에서는 근교의 한국 사찰인 한국사, 법주사, 보림사를 방문하여 해외포교 현장을 체험하였으며 미래의 포교 방법도 모색해 보았다. 조지타운대학을

방문해서는 불교학개론을 듣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미래지향적 교육과 이들을 어떻게 포교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또한 미국 현지의 절들을 방문해서 재가 법사 위주의 실리 추구 불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불교와 비교해 보면서 진정한 스님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남은 기간에는 빌리지덴도, 티벳하우스 등 유명 선센터를 방문하고 유니온신학대학의 폴리터 교수, 정현경 교수와 만나 세계불교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것이다.

현재 국제불교학교는 탁남한 스님의 응용불교유럽회(European Institute of Applied Buddhism)와의 교류를 통해 참여불교, 실천 불교의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해외불교 학자를 특강교수단으로 구성해 학인스님들이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개교식때 진정한 한국불교의 선지식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시던 어른 스님의 부탁을 가슴에 깊이 새긴 국제불교학교 스님들, 졸업하고 뜻 높은 스승으로 전범에 힘쓸 그들의 모습에 자못 기대가 크다.

화운사 031-335-2576



메릴랜드 주 인터페이스 승가에서 기념촬영

불학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세계불교사’ 출간

세계종교인 불교의 지난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한 권의 책에 응축한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 (불광출판사)가 출간됐다.

2,6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리랑카·미얀마·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펼쳐진 불교, 티베트·몽골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펼쳐진 불교를 비롯해 일본과 타이완,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꽃피워 왔다. 오늘날 불교사 연구는 인도와 중국의 불교사만이 아니라, ‘세계불교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파악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펼쳐야 하는지를 배울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는 각 지역의 불교를 전공한 학자들에게 의뢰하여 ‘세계불교사’를 한 권의 교재로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인도,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불교와 티베트, 몽골, 타이완 그리고 미국의 불교사와 현황이 총망라되어 있다.

불학연구소의 허정 스님은 “현대는 지성의 통섭시대로 지성의 내적 구축이 요구된다. 이 시대의 수행자는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현재를 바로 알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변모시키는 세계종교로서의 미래불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청소년 미국 문화연수를 다녀와서 ...

미국동부의 조금 쌀쌀한 이른 아침, 숙소에서 나와 오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차를 타려고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47명의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단’을 태우고 가야 할 차량은 고작 작은 택시 한 대에 불과하다는 답이다. 16일 동안 머리 속에 아침저녁으로 47명이란 숫자를 넣고 다녔더니 한국에 돌아온 며칠 뒤 꾸었던 악몽의 한 부분이다. 14박 16일간 옥천암, 조계사, 국제선센터 친구들과 미국 동부의 뉴욕, 보스턴, 매사추세츠, 워싱턴과 서부 샌프란시스코, LA 등지로 문화연수를 다녀왔다.

정범스님은 10년 전 미 동부의 아이들 5명과 함께 플로리다로 자가용 여행을 한 것을 계기로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범스님은 40여 명의 안전을 많이 염려하는 눈치였다.

언젠가 호기심만으로 떠났던 미국에서의 1년 반 생활은 내 삶의 목표를 세우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티브로 충분했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줄 곳도 많았고, 경험하게 해줄 것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한 장소에서 충분히 즐기고 사유할 시간이 적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여행은 미국에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정진하고 계신 한국 스님들께서 반겨주시고 여름 여행에서 만난 미국 친구들까지 합세하여 보내는 시간이었던지라 참가 학생들에게 특별한 여행이 아닐 수 없었다.

여행 중 아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쇼핑, 스스로 하는 자유여행, 미국음식 먹기 등이었다. 나는 청소년들과의 5년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 시절에 많이 보고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다. 단체생활을 경험하기 어려운 한국의 아이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종종 과도한 학업, 인터넷, 스마트폰 등은 아이들로부터 친구들과의 시간을 뺏는다. 물론 그런 것들이 기술을 이용한 다른 방법의 소셜 네트워킹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서로 눈빛을 보며 그 주변 분위기를 느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꼭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역시나 거의 대부분의 참가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단체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컨셉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하게 팀별로 활동했고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끼리 뭉치고 서로 돕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슬펐던 일은 아이들에게 ‘무서운 인상’을 끊임없이 주어야 했던 일이다. 나의 지론은 서로가 믿음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이지만 경험이 부족한 47명의 대군을 이끌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한 법우가 ‘스님, 스님과 저희는 학생과 학교 선생님 같아요’라는 말을 했을 때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아이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침 예불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산혜연선사발원문에는 ‘아이로써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여 세상일에 물 안 들고’라는 구절이 나온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말 속에 담긴 의미에 깊이 빠져들며 발원하곤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스님들과 이런 여행길에 나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전생 어느 생인가 나처럼 발원하여 어린 나이에 불교와 인연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와 같은 인연을 잘 이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새삼 생각해 본다.

클. 상인스님

사회복지재단, 라오스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

지난해 5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에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다. 안과 개안수술로 시력을 회복했다는 한 후원자는 “개발도상국 어린이가 개안수술을 돕고 싶다”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큰 돈을 보시했다. 이에 재단은 라오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 라오스를 방문, 라오스 정부 및 국립안과센터와 소외계층 시각장애인 무료 개안수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개안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900여 달러인 라오스는 국가 예산 대부분을 해외 원조에 의존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안과 질환의 경우, 100~300달러의 수술비가 없어 시력을 잃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재단은 수도까지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농촌이나 산간 지역 거주자들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등,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빛을 찾아주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바튼국립안과 센터장은 “해외 원조가 많

았지만,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지원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한국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 수술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빛을 찾아주기 위해 모든 의료진들이 노력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수술 진행 현황과 환자 경과를 보고함으로써 이런 나눔의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12월 7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을 위한 유치원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행사에는 한국 재단의 상임이사인 종선스님과 재단산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라오스의 경우 유치원 이용비용의 부담으로 상당수가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한 채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유치원 시설이 적어 아이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다녀야 하며, 시설이 열악하여 교육환경이 좋지 않고 급식 지원이 불가능하여 아이들이 점심을 굶거나 점심 때 집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다.



라오스 유치원 준공식

이번에 건립된 라오스 유치원은 비엔티안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나후 지역에 선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주민 조직을 위한 지역밀착형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재단은 라오스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라오스 나후 지역에 지속적으로 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외의료봉사대를 조직·파견하는 등 국경을 넘어 부처님의 자비 손길을 전하는 나눔결사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723-5101
후원계좌) 농협 301-0058-8672-51

지구촌공생회, 불교국가 라오스에 희망의 씨앗 심다



나눔움마이초등학교 준공식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송월주)는 지난 12월 11일 라오스 비엔티엔 시 사이타니구 나눔움마이 마을에 위치한 나눔움마이초등학교 준공식을 거행했다. 나눔움마이초등학교는 지구촌공생회 마경완 후원자의 기부금 5,000만 원에 지구촌공생회와 불교신문(사장 수블스님)이 공동으로 진행한 캠페인으로 모인 기부금 총 1,207만 원이 더해져 총 6,207만 원의 기금으로 건립됐다.

나눔움마이초등학교는 라오스 비엔티엔 시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어린 학생들은 교실이 부족해 나룻가지를 이용해 만든 교실에서 공부해 왔다. 지난해 6월 송월주 이사장 스님과 지구촌공생회 관계자들이 라오스에서 시찰을 하던 중 나눔움마이초등학교의 이러한 사정을 알게 돼 불교신문과 공동캠페인을 시작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라오스 학생들의

소식을 들은 불자들은 십시일반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결과 총 1,207만 원이 모금됐다.

지구촌공생회는 마경완 후원자님의 기부금 5,000만 원과 캠페인 모금액으로 교실 5칸과 화장실 4칸을 신축했으며, 기존 구교사에 대한 수리도 완료했다. 교육 여건이 유난히 열악했던 나눔움마이초등학교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이동도서관 사업'에도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학교이다. 그동안 라오스 나눔움마이초등학교의 학부모, 주민들,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해당 사업에 큰 관심과 열의를 보여 왔다. 앞으로 91명의 나눔움마이초등학교 학생들은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나눔움마이초등학교 건립기금으로 5,000만 원을 보시한 마경완 후원자는 이

더프라이스, 새해에도 훈훈한 기부 이어져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는 봉은사, 한마음선원, 백천불교문화재단을 새로운 후원 파트너로 맞이했다. 지난 19일, 더프라이스는 백천불교문화재단과의 협약식을 가졌으며, 후원금으로 3천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번 후원금은 미얀마 따린 지역의 민가문 학교 증축 사업에 쓰인다. 건물 한 채의 증축은 중등교육(Post Primary School)을 진행하여 민가문 마을 아이들의 중학교 수업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연말에도 더프라이스에 대한 훈훈한 후원이 계속되었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스님은 더프라이스에 5천4백만 원을 기부했고 이에 대해 봉은사 시상식에서 더프라이스의 상임이사 묘장스님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미얀마 바간지역의 학교 증축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봉은사 신도회의 주최로 3일간 진행되었던 '행복나눔 바자회'에서 마련된 것이다.

안양(본원)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스님)은 지난 11월 개최된 한마음 음악제 수익금 전액 1억 원을 기부했다. 한마음선원의 더프



라이스 후원은 이사장 법등스님과 그의 인연으로 시작되었고 후원금은 더프라이스의 미얀마, 동티모르 사업지에 각각 사용된다.

앞으로 더프라이스는 봉은사, 한마음선원, 백천불교문화재단과 지속적으로 그 인연을 이어갈 것이다. 올해 더프라이스의 미얀마지부는 중등예비학교(Post-Primary School)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교실 증축, 도서관 증축 등을 하고 있고, 내년에 바간 지역에서 네 번째 학교를 맞이한다. 또한 동티모르 아수마노 마을의 수질 조사 및 검사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워터로드(water-road) 사업에 매진할 예정이다.

더프라이스 행복나눔팀 이현주 후원문의) 070-7596-9988~9

번 라오스 지부 시찰 동행 제안을 사양하고, 그 비용으로 나눔움마이초등학교에 미술교육도구를 지원해, 동체대비실에서 우려나오는 진정한 보현행을 보여 줬다.

이날 이사장 월주스님은 “10여 년 전 빈곤국가 돕기 차원에서 라오스를 방문한 것이 인연이 돼 유치원을 개원한 이후 교육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왔다.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에서 MOU 협정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라

고 말했다. 이번에 준공식이 가졌고, 지구촌공생회가 청소년센터를 개관해 라오스 지부에 사무실을 확장해 이전하니 어느 때보다 마음이 흡족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수행자의 본분지를 견지하며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지구촌공생회 후원문의) 02-3409-0303
후원계좌) 농협 100026-55-003657
국민 337707-04-019295

호주 한국불교의 자존심, 호주 정법사

호주 정법사가 창건된 것은 1993년 3월 4일이었다. 정법사는 여느 해외 사찰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고난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2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새로움이 태동하는 데 대한 당연한 감응이었으며 완전을 지향하는 데 따른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정법사 태동에는 두 개의 사찰 이름이 녹아 있으며 호주에 사는 우리 불자들의 상당한 신심과 정진, 그리고 애증의 갈등도 함께 녹아 있다.

호주에서 한국 불교가 싹을 틔운 것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몇몇 거서들이 주축이 되어 달마가야 소사이 어티 설립을 당국에 신청했고 같은 해 4월 10일 허가증이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찰 건립 문제는 지지부진하였다. 이 지지부진하던 사찰 건립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것은 1985년 4월 장산스님(현 종로 대각사 주지)이 불상과 범종을 모시고 와 흥법사란 간판을 내걸고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봉행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불광사와 달마사에 이어 관음사가 생겼으며, 불광사와 달마사가 통합되면서 정법사가 탄생하였다.

창건주인 기후스님의 결정적인 역할로 탄생한 정법사는 1993년 현재의 정법



사 건물을 사 불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옆과 뒤에 있는 3채의 건물을 추가로 사들여 4채의 단독주택을 종교부지로 사용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2011년 6월에는 종교부지 신청 8년 만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찰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 주거지역에서는 사찰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이번에 주거지역에 정법사가 종교 활동 허가를 받게 되어 더욱 활발하게 불법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법사는 시드니 시내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걸리는 벨필드(Belfield)라는 지역에 있으며 주위에 공원이 많아 사찰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장소에 있다. 또한 주변에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교민들이 손쉽게 절을 찾을 수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50여 평의 넓은 법당에서 정기 법회가 봉행되며, 평상시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 수는 100여 명에 이른다. 매주 화·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총무 해산스님이 주도하는 생활요가 수업이 있으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글학교는 어린이 교민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정법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청년회는 야외수련을 통한 친목을 다지며 신생활을 하고 있다.

정법사는 대외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에서 주최하는 구정 퍼레이드에 정법사 합창단이 참여했으며 호주 주립 아트갤러리에

서 다도, 연꽃만들기, 법문 등 불교 관련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호주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리고 있다. 특히 각 카운슬에서 주최하는 축제 행사에 종이컵 연꽃 만들기 워크숍에 초대를 받아 호주인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2월에는 시드니 시티 카운슬 주최 축제 행사에 3일간 연등만들기 워크숍 초대를 받았으며 파라마타 카운슬 주최 축제에도 참석했다. 작년에는 호주의 수도 캔베라 꽃축제에 워크숍 초대를 받는 등 1년에 5-6번 정도의 초대를 받고 있다.

정법사는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여 이민, 여행, 유학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한국에 있는 불자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법사는 전통 문화 공간 마련, 탑 주위 정리, 종각 신축 등의 불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문제로 한국에 계시던 회주 겸 주지 스님인 기후스님과 정법사 신도 출신의 총무 해산스님이 야심차게 정법사 발전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법사의 비전, 미션, 그리고 장단기 계획이 세워지고 있으며 특히 정법사의 비전과 미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매주 법회 때 그 원력을 부처님전에 노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글_ 회주겸 주지 만오 기후스님
호주 정법사 +61-2-9642-7672

‘북가주 청소년 불자 후원회’ 출범

‘북가주 청소년 불자 후원회’는 붓다의 가르침을 자녀 교육에 적용하고자 2011년 11월 20일 출범을 하였다. 후원회는 북가주 청소년 모임인 카이바 활동을 하면서 캠프에 동참한 학부모들이 모임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단체이다. 카이바는 하나의 사찰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 북가주에 있는 삼보사, 보리사, 정원사 등 여러 사찰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모임으로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다. 학부모들이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형전스님이 주지로 있는 보리사에 적을 두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후원회의 목적은 “우리 자녀가 가치관의 혼돈을 벗어나, 한국인의 후예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상, 가치관, 인격도야를 향상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불교를 접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이민세대로서 우리가 처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함”이다.

아이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역할을 조직적으로 이행

하고자 후원회 운영의 중요한 4원칙을 세웠다. 1) 아이들의 자율성 존중 2) 부모로서의 자주적 역할 3) 화합 4) 열린 마음이다. 조직과 모임은 바쁜 현대사회에 맞게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인터넷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회원은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주 활동 멤버이며, 교사, 부모 회원이었던 사람, 취지에 찬성하는 후원자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아이들 모임 지원, 전 세계 청소년 불교교육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서로 협력해서 참가하기, 좋은 부모 되기 워크숍, Temple Stay, 부모와 함께하는 명상 및 나누기 등이다.

한편, 지난 연말 한국에서 방문한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 연구단”(단장: 서울 옥천암 주지 정법스님)을 맞아 북가주 청소년이 일주일간 같이 숙식하며 친목을 다졌다.

앞으로도 고국의 청소년 불자들과 교류의 폭이 넓어지길 기대하며, 한국에서 진행되는 Temple Stay 프로그램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글_ 달오거사(이향석)



(좌)출범식 후 기념사진 (우)북가주 교민 자녀들이 한미 불교문화연구단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LA 고려사, 베트남 스님과 신도 100여 명 방문

베트남 티엔비엔찬누엔선센터에서 스님 3명과 신도 100여 명이 1월 29일 아침 8시 30분에 고려사(주지 묘경스님)를 방문하였다. 베트남식 예절을 모셨는데 절을 할 때마다 종을 치는 모습이 좀 색달랐다. 그리고 동참한 신도들은 통일된 법복을 입고 있었으며, 한 스님은 6살에 출가해서 25년 동안 수행 중이라고 하였다. 미국 LA 코리아타운에서 고려사라는 한국의 절을 순례할 수 있었던 것과 한국 스님이 입고 있는 가사와 장삼이 인상 깊었다고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묘경스님은 “고려사는 30년 된 한국 절

이라고 소개하고, 고려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준비한 물과 떡을 나눠 드렸다. 고려사가 LA에 있는 한국의 절로 많이 알려진 것 같다.

글_ 고려사 주지 묘경스님
LA 고려사 +1-808-735-7858



라트비아 리가선센터, 한국선 수행 중

리가선센터(Riga Zen Center)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 있다. 2004년 설립 당시부터 송산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국선을 수행하고 있는데, 묘지사라는 한국사찰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모든 불교국가의 스님과 선지도자들이 라트비아를 방문하거나 설법 등의 행사를 할 때 리가선센터가 도맡아 기획하고 있다. 대표 알렉산드르스 라흐티노보스와 빅토르 하르라모브스는 라트비아의 불교대표로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무상사에서 보행스님



이 오셔서 설법하였는데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에도 현각스님 등 많은 한국 스님들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현각스님은 리가선센터의 가장 큰 후원자이다. 언제나 누구라도 와서 함께 수행할 수 있다. www.dzen.lv

뉴욕부터라디오, 보스턴 문수사 새해 첫 사찰탐방

보스턴 문수사(회장: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는 창건 20주년을 기념해 조성한 큰 법당 부처님 광배와 연화좌대 불사 회향 법회를 2월 5일 봉행했다. 이에 맞춰 뉴욕부터라디오 방송은 새해 첫 사찰탐방으로 보스턴 문수사를 방문했다. 아래 내용은 주지 혜각스님이 뉴욕 부터라디오에 출연하여 문수사를 소개한 내용이다.

보스턴 근교의 웨이크필드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문수사는 신심이 돈독한 지역교민과 유학생 및 교환교수들을 위해 스님들의 원력에 의하여 창건된 사찰이다. 1992년 2월 2일 창건된 문수사는 미국의 정신적 고향이며 문화와 교육의 수도 보스턴에 뿌리를 내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불교의 정신을 구현하고 나아가 현지인들에게 참선지도도 하면서 미국에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1992년 70가족으로 시작한 신도 수는 1998년에 200가족이 넘었고 현재는 250여 가족이 문수사를 찾아 마음을 다스리고 부처님의 크신 뜻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과 교포 2세 등 젊은 신도들이 많은 점도 중장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일반 사찰과 대비되는 젊은 사찰 문수사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비록 한국어로 법문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문수사를 찾는 벽안의 불자들을 보는 것도 낯설지만은 않은 풍경이다. 또한 문수사는 미국유학 및 포교 활동을 하는 한국의 젊은 스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한국불교 포교의 기점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년 동안 보스턴 지역 유수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며 문수사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간 많은 인재가 학계와 관계 및 재계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음은 문수사의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수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법회를 하고 있으며,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요가를 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요가 클래스를 열고 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 11시 법회 시간에 맞추어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기본적인 불교교리를 가르치는 한글학교가 열리고 있으며, 또 문수사의 자랑인 합창단이 창단되어 2003년(여플리광장)과 2004년(보스턴 커먼에 아시아지역 모든 사찰의 참여 속에서 열린 보스턴 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찬불가 공연을 함으로써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금은 잠시 합창단 활동을 쉬고 있으나 재창단을 향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매년 웨이크필드 시에서 열리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농악대 및 태권도 시범단 등이 참여하여 지역주민과의 우호증진에도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문수사는 20년 동안 마음의 고향으로, 또 교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그리고 신앙심을 키우는 곳으로 등 많은 역할을 하여 왔다.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따뜻한 충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더욱 더 문수사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 개원 20주년 법회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보스턴 문수사 www.munsusa.org

TARA(북가주 청년 불자들의 모임), 신년 첫 번째 법회

타라(타라타의 타, 야소다라의 라를 따서 만든 단)는 관세음보살님의 눈물이라는 뜻으로 북가주 연합 청년 단체(불광사, 보리사, 죽림정사, 삼보사 등의 소속 청년)이다. 구성원들은 1977년생부터 1989년생들로 이민 1세와 1.5세, 2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카이바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있다. 보리사라는 소속 사찰이 있고, 법사는 주지인 형전스님이 맡고 있다.

1월 14일 TARA의 신년 첫 모임이 있었다. 회장 설정원 군 외 12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의 법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 아르놀트에서 있었던 타라 산장 캠프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모든 행사에는 득과 실이 있기에 잘된 점은 다음에 이루어질 다른 행사에 적극 반

영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은 새 회장과 새로운 회장단의 선출이 있었다. 2년의 임기 기간을 잘 마무리한 설정원 회장의 진행으로 새 회장은 안정열 회원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은 문성범, 손예리가 내정되었다. 그 외 총무와 서기를 자체 투표로 선출하였다. 이들은 서로 합심해서 더욱 나은 모임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 회원들에게 믿음을 줌으로써 탄탄해 보이는 팀워크를 과시했다.

회장단 선출 후 타라는 2012년 상반기 계획 및 타라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했다. 3월 바비큐 파티를 시작으로 7월 타라 여름 캠핑, 그리고 8월 타라 연중기획 파티를 논의했으며, 타라의 핵심 프로젝트로 사회봉사 활동을 기획하였다. 그 덕분에 타라는 자신들만을 위한 친목모임을 떠나서 좀 더 나아가 사회 봉사활동도 함께 하는 의미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함을 결의하였다. 올 한해 더 나은 타라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클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클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cafe.daum.net/BorisaJabi

뉴욕한마음선원, 설 차례 및 새해맞이 촛불제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주지 원공스님)은 1월 22일 새해맞이 차례와 함께 촛불제 정진을 했다. 마음의 촛불을 밝히는 촛불제는 합동 차례 후 촛불의식을 갖고 일주일간 수행 정진 후 28일 회향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성, 곧 마음을 깨달아 영원한 자유인, 부처님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깊고 본질적인 진리이며,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하셨다. 한마음선원에서는 매년 구정 설을 맞이하여 불성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혀 들고 참마음을 밝히는 정진을 한다. 누구나 불성이 본래 밝아 부처님과 다르지 않음을 믿으며, 일체를 놓아 버려서, 업식을 녹이고 반야의 지혜를 밝히며, 자유인의 삶을 위한 원력을 나누는 정진이다.

‘조상님들을 비롯한 영가님들의 마음을 밝히는 촛불, 가족과 친지들의 행복을 발원하는 촛불, 나의 발원이 담긴 촛불, 일체 생명의 행복을 발원하는 촛불,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 그리고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발원하는 촛불’

특히 지난 한 해의 묵은 티끌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밝고 행복한 새해를 열어가자는 뜻이 담긴 정진이다. 한국에서는 구정 초하루부터 3일간 정진을 하는데, 뉴욕지원에서는 대부분의 신도님이 평일에는 나올 수 없어서 일요일에 입재를 해서 매일 저녁 촛불을 밝히고 정진하며 토요일에 회향한다.

클_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www.juingong.org

▶ 불사소개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은 지상 목조 108평 대웅전과 지하의 현대식 다목적 시설의 불사를 하고 있으며, 지하실은 페인트 공사가 끝나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대웅전은 단청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불사를 회향하고 불자들이 수행 활동을 좀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외국인들을 위한 포교를 적극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담장도 북쪽은 한국 전통 기와(와편) 담장을 하였으며 마



불사 중인 대웅전 모습

당에는 친환경 공법으로 불력을 놓아 차와 사람이 다녀도 잔디가 자랄 수 있게 하였다. 가능하면 한국 사찰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하였다. 길을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언제 오든 흔하느냐고 묻곤 한다.

성찬스님, 불교사원 ‘보로부두르’ 대해 강의

“보로부두르(Candi Borobudur : 인도네시아 자바에 있는 불교사원은 단순한 불교건축물이 아니라 고민과 갈등을 들어주고 위로를 주는 친절한 이웃 할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성찬스님이 설명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열린 강좌가 지난 1월 연구원 강의실에서 열렸는데, 성찬스님이 ‘돌 향기 옛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이번 강의에서 성찬스님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보로부두르 사원 1층 주벽 상단 부조 120장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설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동양에서 손꼽히는 불교 사원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된 아름다운 건축물이지만 지금까지도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명

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밀의 사원이고, 그 자체가 가진 콘텐츠가 풍부해서 짧은 강의에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향후 보로부두르를 보고 경험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면 그만큼 보로부두르 이야기도 다양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어느 날인가 보로부두르가 비밀을 벗는 날도 오지 않을까?

현재 분당 죽전 여래향사 법사스님이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능인정사를 성찬스님은 매년 3~4회 방문하여 학생 수련 법회 및 수행지도도 하고 계신다.



기사제공_ 데일리코리아

(위)성찬스님 (아래)보로부두르 사원



인터뷰 새로운 절 경영전략을 실천하는 마쓰모토 스님

스님의 출가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1979년 일본 홋카이도 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스님이셨지만 아버지는 일반인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학과 종교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동경대학에서 철학과 종교를 전공했는데 공부할수록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의 경험이 일본 전통적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에 스님이 되어 일본 철학과 문화에 몰입했고 나 자신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일본에는 편의점 수의 3배에 달하는 70,000개의 절이 있습니다.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상들이 남겨 준 잠재적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이를 위해 일해 왔고 그래서 현대적 사찰경영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 다소 복잡한 분야이므로 아무도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제가 앞장서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ISB(Indian School of Business)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ISB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ISB는 세계 최고 경영학교 중 하나입니다. 경영만을 배우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 경영은 모든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MBA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절의 뭐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제가 하는 일에 깊이가 있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저의 삶입니다. 일본불교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인에게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전통을 지켜 가면서도 현대인의 요구에 맞춰 절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스님들이 종교적 지



도자이지만 절도 잘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스님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ISB에서 한 단체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다른 스님들에게도 알릴 계획입니다.

스님이 계시는 교묘지사(光明寺)는 어떤 절인가요?

교묘지사는 고찰로 1212년 도쿄에 지어졌습니다. 정토종에 속하는 절로 정토삼부경이 소의경전이고 염불수행을 합니다. 염불로 현실의 삶에서 깨달으려 합니다. 절 주변에 회사 건물들이 대여섯 개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절을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일본 청년들은 불교에 관심이 많습니까? 젊은 세대는 그동안 불교에 큰 관심이 없었

인도에서 붓다를 재발견한 커닝햄 박사

- The Hindu [2012. 1. 24]

인도, 자이푸르 - ASI(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가 19세기에 이룬 업적과 소수 종교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인도에서 불교의 부활을 가능케 했다. 19세기에는 영국의 거장들이 불교를 중립적인 종교로 보았다면, 20세기 인도 첫 수상 자와할랄 네루는 불교를 열정을 가지고 대했다. 지난 주 자이푸르문화축제 기간 중 열린 '인도 불교유적의 재발견' 학술대회에서는 네루가 주목을 받았다.

유명한 역사 저술가이자 기자인 존 케이와 고고학자인 나안웃 라히리가 참여한 가운데 ASI의 창립자 알렉산더 커닝햄이 자주 언급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커닝햄(1814-93)의 마하보디유적지 발견이 인도 불교 부활의 서막이 되었기 때문이다.

케이는 붓다를 종교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불교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탁실라, 파리오르, 카주라호, 마하보디 등 불교유적지의 발견 이후부터라고 하면서 "불교학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도가 고대문명이라는 역사적 정체



마하보디사원

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커닝햄은 25년 간 ASI를 이끌면서 인도의 문화유산 특히 불교 사원과 탑을 발굴, 분류,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업적을 쌓았다."고 말했다. 반면 라히리 교수는 "커닝햄은 암마라바티 등의 유적지를 발견한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고고학이 아닌 종교적인 면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탑만을 찾아다닌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케이는 "영국이 봤을 때 19세기에 있었던 불교유적에 지대한 관심은 유적의 발굴이 힌두교나 이슬람교 쪽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고 '중립적'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불교 유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사람은 인도 최초의 수상인 네루였다."라고 언급했다.

으나 점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불교가 종교의식에 치중했으나 청년들은 조상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불교를 수행하려 합니다. 문제는 절들이 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약간의 차와 다과를 무료로 대접하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강요하지 않으며 청년들이 절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든 열린 공간이자 소통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청년들이 절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교묘지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경영학의 대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경영 방법을 응용해 보면 우리 절의 주요 서비스는 재사, 장례사업, 추모공원사업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종교단체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종교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교묘지사의 장점은 위치, 인력 자원, 열린 문화입니다. 다른 절들도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 잘 활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절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는 무엇입니까?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절 경영에 성공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도 불자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은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사람들과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쉽고 단순한 말로 전달돼야 하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성공전략의 하나입니다.

- 이 글은 세계일화에서 게이수케 마쓰모토 스님과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info@higan.net(마쓰모토 스님 메일 주소) www.higan.net/english

국제불교 단신

◆ 제23회 티베트 닝마 문람첸모 대법회, 보드가야에서 열려
닝마 문람첸모 대법회가 2012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보드가야에서 열렸다. 닝마 문람첸모 대법회는 1989년 이래 티베트 닝마파의 수행자들이 모여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법회이다. 마지막 날에는 파드마삼바바와 축(상징적인 음식)을 기렸고, 파드마삼바바에 귀의하는 의식을 끝으로 법회를 마쳤다.



닝마파 상징 가루다 ▶

◆ 제3회 붓다페스티벌: 정념을 찬탄하라!

제3회 붓다페스티벌이 2012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버지니아주 로슬린 아티스피어에서 열린다. 페스티벌 기간에 영화제, 설법, 참선,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다. 사론 살즈버그, 비구니 파나와티, 촌린포체, 타라 브라크 등의 유명 인사가 연사로 참여한다.



◆ 제13회 샤카디타, 논문 신청 접수

세계여성불자연합 샤카디타가 2013년에 열리는 제13회 인도 바이샬리 대회에 참가할 논문 신청을 받는다. 올해의 주제는 "민중불교"이다. 샤카디타는 여성불자들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데 헌신하고 있다.



850년 전 앙코르 문명 3D 복원 시작

- 현대불교신문 [2012. 1. 18]

'글로벌 헤리티지 펀드'가 저개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지원 활동을 펴고 있다. 이 단체의 후원을 받아 반테이 츠마르 사원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존 센데이 단장은 "자야바르만 7세가 지은 반테이 츠마르는 앙코르 왕도로부터 북서쪽 165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금까지도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

한다. 최근 반테이 츠마르 사원에 대한 지표조사를 마친 센데이 단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고고학자들은 3D 입체영상 촬영 장비를 동원해 사원 곳곳에 흩어진 사암 조각을 촬영하는 등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글로벌 헤리티지 펀드가 매년 이 작업에 2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한 센데이 단장은 "3D 입체영상으로 촬영된 사암 조각에서 원래의 모습을 유추하고, 추적하는 힘든 과정이지만, 850여 년 전 앙코르 문명을 엿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테이 츠마르 사원에는 수많은 관음보살이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다.



반테이 츠마르 사원 유적

집중조명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나르는 ACC

대만 불광산사는 세계 각 나라에 법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성운 큰스님의 청을 받은 제자 후이리스님은 남아프리카에 최초의 대승불교 사찰인 난후아사를 세워 아프리카에 불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말라위에 아프리카복지센터인 ACC(Amitofa Care Centre)를 세워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CC의 지난 10년 간의 복지프로그램은 그동안 스와질랜드, 차드, 나이지리아, 잠비아, 짐바브웨, 케머룬 등의 아프리카 대륙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번 집중조명에서는 ACC를 세운 후이리스님과 ACC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후이리스님은 1992년 아프리카에 첫발을 내딛었고 1998년 말라위에 휠체어를 보시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병과 가난의 지속적 위협에 놓여 있음을 목격했고, 그 와중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의 참상을 알게 되었다. 말라위 인구 천백만 명 중 40%의 국민이 HIV양성자이고 에이즈로 죽은 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들이 백만 명에 달한다. 충격을 받은 스님은 이생과 다음 생의 목숨을 아프리카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바칠 것을 발원하고 2001년 말라위에 고아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복지재단 ACC를 세웠다. 특히 후이리스님은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불교 수행으로 아이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타인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ACC는 전 아프리카 대륙에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다. ‘한 가족’ 혹은 ‘아이들의 마을’이라는 이상에 근거해 활동하는 ACC는 16~20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그룹마다 유모, 보육사, ‘엄마’ 각 1명씩 3명의 선생님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게 한다. 12가족이 되면 한 마을을 만들어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서로 간에 교류할 뿐만 아니라 식구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의무감을 배우게 된다.

ACC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생명의 존엄을 자비의 서원으로 지켜 나가면서 불법의 요체인 자비심으로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를 잘 선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



서 아이들이 ACC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가치관을 길러 가난과 고통의 땅인 아프리카를 풍요와 우정의 땅으로, 버려진 땅을 축복 가득한 땅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ACC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중국인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지역의 언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지역 종교와 전통,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말라위 노동법을 배우게 하는 등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내고 있다. ACC는 그동안 법당과 선원을 지었고 직원들을 위한 숙소도 세웠으며 아이들을 위한 숙소도 짓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200개가 넘는 고아원에 도움을 손길을 주고 있고 매년 150개의 휠체어를 보시하며 바느질 자원봉사자 모임을 돕고 있다.

ACC는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산하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며, 교육하고, 감독하여 활동들을 평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모임을 통해 수입창출 사업을 꾸려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확장을 꾀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가난과 질병, 낮은 교육과 다른 여러 가지 재난으로 교리나 설법이 아니라 실천하는 실질적인 불교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따라서 불교단체인 ACC의 이러한 활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적절한 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원장 후이리스님은 ACC가 아프리카 모든 국가에도 세워지길 바란다. 말라위와 같이 다른 나라들도 에이즈로 인한 고아들이 많이 때문이다. 또한 후이리스님은 “아프리카에 불교를 전하고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은 한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합니다. 그래서 5번 아프리카 절에 계속 태어나서 300년 이상 포교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

글 편집부 / www.amitofoc.com

암흑시대는 언제인가?

- 부디스트채널 [2012. 1. 30]

어떤 사람들은 칼리유가(인도 경전에 나오는 세계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 여기라고 하면서 곧 닥칠 것처럼 말한다. 2012년이 끝날 때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시대가 황금기인지 암흑시대인지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떤 징조나 전조가 있는 것일까? 지진, 보랏빛 하늘, 대기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징조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나는 자기전사, 잘 나가는 경제, 자유로운 정보의 이용, 평화로운 시간 또한 반드시 황금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없다. 빛의 시대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기꺼이 들으려 하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때이다. 이러한 가치들이 조직적으로 막힐 때, 그런 때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가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거지를 병균처럼 대하고 계속 지구를 망가뜨리는 억만장자를 부러워한다면 종말을 초대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것은 인연으로 나는 것이다. 암흑시대나 황금시대도 예외는 아니다. 미리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유 없는 혼돈의 그것도 아니다. 운명은 조건지어진 것이다. 많은 인과 연 중 가장 주요한 것이 지금의 자신이다. 당신은 운명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이다.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탁발하기 위해 연



꽃 같은 발로 당신의 집 앞에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룰렉스시계나 명예, 친구 등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귀찮은 것,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설사 우리가 칼리유가의

한가운데에서 암흑시대의 끝없는 인연에 매여 있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세계가 멸해 갈 때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심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진다고 한다. 명민한 영적인 사람은 이

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암흑시대는 불·법·승 삼보의 소중함을 간절하게 생각하게 한다.

인연에 의지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빛을 찾아야 하고 빛이 올 수 있는 인연을 길러야 한다. 물질과 반대되는 것을 지속해서 상기해야 한다. 불상, 법음, 승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게 되듯 불보살님의 니투심을 간절히 발원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도 환생하기를 기원할 수 있다. 바람, 공기 같은 자연도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 인내의 가치를 떠올리게 할 수 있으므로.

글 종파르 집양 칸세 린포체 (부탄 스님으로 영화제작자, 저술가)

명상심리치료학의 미래

- Joe Loizzo, M.D., huffington post [2012. 1. 17]

선수행이 불안, 만성병, 우울증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최근 30년은 지난 100년 간의 흐름이 뒤집어진 시간이기도 하다.

프로이드는 심리치료학을 철학과 의학의 중간 학문으로 보고 종교가 아닌 과학적 학문으로 보려고 노력했다. 안타깝게도 심리치료학은 영적 뿌리는 무시한 채 ‘새로운 과학’이라 정의함으로써 신화와 의식뿐만 아니라 명상적인 상태와 수행도 동시에 버려야 했다. 영적인 모든 것을 거부하는 프로이드의 사상은 주류 심리학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칼 융은 심리치료학이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는 의술을 넘어 우리 본성의 지고한 가치를 이끌어내는 영적 과학이기를 꿈꿨다. 정념(mindfulness)은 주의력이나 신

경가소성, 공감적 조율을 강화하는 것으로 증명되어 감에 따라 전통 심리치료학과 새로운 인지치료학에 빠르게 편입되어 갔다. 이 단순한 원리가 심리치료학계에 반향을 일으키자 연구원과 의사들 사이에 일반적 명상법과 특히 불교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수행과 요가에 대한 연구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견해는 과학과 영성의 갈라진 틈을 메우기 시작했다. 현대 문명의 분열된 얼굴이 융합되기 시작한 것은 과학적 연구와 인류의 고대 수행 전통의 응용 즉 명상신경과학과 명상심리치료학의 새로이 떠오르는 두 분야에서였다. 환자와 심리치료사들이 전통적인 수행법에 더 관심을 보임에 따라 수행법이 자신의 의식 분석, 감정의 자기치유 등을

포함한 복잡한 심리학에 근거해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고전 불교심리학과 핵심 수행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명상을 심리치료에 접목하려던 기존의 시도에서 불교와 서구 심리학을 융합하려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선수행에서 오는 지혜와 수행법을 현재의 신경과학, 명상심리치료학과 융합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명상적 방법을 외면했던 경향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불교명상과학이 이러한 변화에 지금껏 촉매제 역할을 해 왔듯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과학과 문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흐름을 볼 때 명상심리치료학은 현재 프로이드도 만족시키고 칼 융의 꿈도 완벽하게 실현시킬 적절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한국YBA, 태국에서 “지구촌 청소년 평화교실 2012” 개최

참가 청소년들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정체성 깨달아

▼ 버마정치범원조협회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모습

한국 YBA(Young Buddhist Association)는 국제연대 NGO “따비에”와 함께, 진해 대광사(주지 탄경스님)의 후원으로 태국 매솟에서 “지구촌 청소년 평화교실 2012”을 열었다. 지난 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소년 8명, 학부모 2명이 참여한 이번 평화교실은 한국 청소년들에게 태국 난민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지구촌의 다른 면을 체험하고 평화의 의미와 국제연대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YBA 이준남 정책실장은 “전쟁의 부재가 평화라면 매솟 일대의 난민촌도 지극히 평화스럽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차별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 하루를 살아간다. 다른 단체에서 흔히 하듯 한국인 참가자가 봉사자나 시혜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의 모순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지 못한다. YBA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으로 살아

가는 정체성을 정립할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며 청소년 평화캠프의 의미를 강조했다.

평화교실 참가단은 YBA가 2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온 매솟 민마호학교재단에 여장을 풀고 지구촌 청소년 평화교실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참가단은 국경다리, 버마정치범원조협회, 메타오 클리닉, 인근 학교 등을 돌아보고 토론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깨달는 큰 계기가 되었다.

최담(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2년) 학생은 소감문에 “이곳엔 정말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한국엔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아이들도 많다. 그 때문에 낭비되는 돈도 많고 제도도 점점 강제적으로 변해가고 경쟁 중심이 되어간다. 이곳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



분인 것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꼈다.”고 적었다.

이번 평화교실은 비록 첫 회였지만 참가자 모두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YBA는 앞으로 “지구촌 청소년 평화교실”을 정기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YBA 02-6414-1034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베트남에 108개 하우스 짓기 기금마련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스님은 베트남 시골학교에 108개 화장실을 짓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에서 500km를 달리고 돌아왔다. 진오스님은 이제까지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토안씨 수술비 마련 및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생명 헬멧 보내기 등 이주민을 위한 후원금 마련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마라톤을 10회 완주한 이력이 있다.

이번 마라톤 코스는 토안씨의 고향인 병화성(300km)과 경상북도 자매결연 도시인 타이응웬성(200km)으로 정했다. 진오스님을 주축으로 함께 간 7명이 마음을 모아 8일 동안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였다. 함께 마라톤을 달렸던 사람들과 많은 후원자들의 마음이 모여 토안씨의 모교인 찌오판 초등학교에 화장실 1호 신축 공사를 할 수 있었다. 마라톤을 완주한 13일에 화장실 완공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108개의 화장실을 신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오스님은 “해우소인 화장실을 짓는 것은 베트남 전쟁 파병 이후 생긴 한국인에 대한 감정을 풀어 버리자는 뜻을 담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빚진 것을 서로 털어 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시골학교 화장실 108개를 만들고 싶다.”고 화장실 건립의 의미를 밝혔다.

하지만 화장실 108개를 짓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 진오스님과 마라톤 참가자들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화장실 1곳을 짓기 위해서 170만원이 소요되며, 향후 10년간 108곳을 짓기 위해서는 2억여 원이 필요하다. 필요한 2억여 원을 모으기 위해 진오스님은 향후 10년을 목표로 마라톤 모금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오스님 혼자서 월력만으로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054-458-0755

베트남 화장실 짓기 후원계좌

농협 301-0088-4874-71 (꿈을이루는사람들)

대구 보현의집

이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설날 행사

지난 1월 전국에서 이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설날 행사가 마련되었다. 타국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는 이주민들이 전통음식을 함께 만들고 떡국도 나누며 한국 민족명절인 설날 축제를 함께 즐기는 자리였다.

24일 대구 보현의집 쉼터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설날 위문잔치”에서 스리랑카 근로자 30여 명이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악기로 합주를 하며 설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 전통 음식을 만들어 시식하기, 어르신들께 세배하기 등 한국

사람들과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대구 보현의집 053-471-6640



한국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스리랑카 이주민들 모습

스리랑카 독립 64주년 기념일 행사 스리랑카 발전 위해 한국의 근면성실 배워야

지난 2월 5일 경기도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주최로 스리랑카 독립 64주년 기념일 행사가 마련되었다.

스리랑카는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18세기 말부터 영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1948년 영국 연방 내 자치령으로 독립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불교국가 스리랑카는 거대한 불상이나 사원, 탕화들을 문화재로 많이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는 1977년 11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87년 3월 한국에 대사관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수교를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서 독립기념식 행사를 조촐하게 치러 왔지만, 올해 처음 700여 명이 넘는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대규모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이날 독립기념 행사에는 다양한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졌는데, 특히 스리랑카에서 초청된 유명 여가수 디프카가 아리랑을 멋지게 불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 의식이 함께 치러졌으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도세스님의 축사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스리랑카 이주민쉼터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짜라 스님은 축사를 통해 “스리랑카

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 약 500여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괴로운 경험을 갖고 있고, 27년간 내전으로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전쟁 이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한국의 동력과 정신을 보고 매우 놀랐다.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과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정신은 우리 스리랑카 국민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교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착한 마음을 지니기는 했지만 매사에 조금 느린 스리랑카 이주민들을 한국인들이 인내로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독립기념행사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불교의식을 주관하고 있는 시라스님